

AI

앤스로픽, 프런티어 데이 창업자 영상 공개

앤스로픽 개발자 계정이 9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프런티어 데이에서 찍은 2분 7초짜리 창업자 인터뷰 영상을 올렸어요. 스폰과 헥스, 사자비, 파일로 네 회사가 클로드로 회사를 만드는 지금을 말해요.



AI · 앤스로픽, 프런티어 데이 창업자 영상 공개

앤스로픽 개발자 계정 클로드데브스가 9월 16일 오전 7시 37분(한국시간) X에 2분 7초짜리 영상 한 편을 공개했어요. 클로드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초기 팀들에게 프런티어 데이에서 지금 클로드 위에 회사를 세우는 일이 어떤 모습인지 물었다는 소개 글이 붙었어요. 영상 첫 장면의 자막은 샌프란시스코에 창업자 200명 가까이를 모아 프런티어에서 만드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고, 그다음 타이틀 카드에 클로드 포 스타트업 프런티어 데이라는 행사 이름이 나와요. 메탈이 확인한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여섯 시간이 안 돼 조회 7만 회를 넘겼어요.

행사 자체는 한 달 전이에요. 앤스로픽이 루마에 올린 등록 페이지에 따르면 프런티어 데이는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반나절 행사로,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을 만드는 창업자를 위한 자리였어요. 초대 전용에 참가비는 없고 음식과 음료가 포함됐으며, 등록은 승인제에 양도가 안 됐어요. 프로그램은 클로드 코드를 만든 보리스 체르니와의 대담, 앤스로픽이 대규모로 돌리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 원칙을 자기 회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듣는 세션, 크레딧을 받아 최신 클로드 제품으로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실습 워크숍, 스타트업들의 라이브 데모로 짜였어요. 참가자에게는 노트북과 함께 지금 회사가 막혀 있는 지점 두세 개를 가져오라고 했고, 슬랙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현장에서 클로드 태그를 설치해 준다고도 적었어요. 영상 속 무대 화면에는 앤스로픽 기술 스택 칼리 라이언이 진행한 보리스 체르니 대담이라는 슬라이드가 잡혀요. 메탈은 체르니가 2024년 9월 혼자 시작한 클로드 코드가 스무 명 남짓한 랩스 팀에서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창업자는 네 명이에요. 스폰의 창업자 겸 CEO 제이콥 샌스버리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말 놀라운 세게티이 이구 시드 그 세게티 시데로 개미 마드 스 이계

잔뜩 든 거대한 멀티플레이어 3D 세계라고 덧붙였어요. 헥스의 공동창업자 겸 CTO 케이틀린 콜그로브는 "우리 사명은 모두를 데이터 인재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회사를 소개한 뒤, 지금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이고 성공할 창업자는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영상은 체르니 대담 장면 위에 더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을 엿었어요.



월든 안, 데빈 GPT-6 Astra 테스트 영상

신뢰성과 안전 이야기는 사자비의 창업자 겸 CEO 서우드 캔러웨이 몹이예요. 그는 "모든 게 더 빨라지고 사람들이 AI로 더 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수록 신뢰성은 점점 더 큰 과제가 돼요. 그걸 다룰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어 "안전과 신뢰성은 형제예요" 라며 앤스로픽이 모델 정렬과 AI를 안전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분명히 많은 시간을 쏟다고 했어요. 파일로의 창립 엔지니어 텐웨이 세는 AI가 신약 개발을 앞당겨 더 많은 약을 환자에게 더 빨리 가져다줄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에 따르면 몇 년씩 걸리던 생물학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는 자기 회사 제품에서 분석을 돌려 몇 분이나 몇 시간이면 끝나고, 연구자는 곧바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요. 콜그로브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큰 평가 묶음을 돌리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언제나 지능과 의사결정 능력이고 그 점에서 클로드가 정말 돋보인다고 했어요. 영상은 너무 크고 무서워 보였던 야심 찬 프로젝트들을 해냈다는 말과, 지난 1년 동안 이전 3년 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고 그 상당 부분이 클로드 덕분이라는 말로

업자의 얼굴과 행사장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클로드라는 이름은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 구조는 클로드 포 스타트업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무료 크레딧과 우선 처리 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은 기관 투자자의 지분 투자를 받았고 창업 4년 이내이며 앤스로픽 스타트업 크레딧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받은 창업자도 프로그램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고, 앤스로픽 파트너 VC나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 혜택 대상이 돼요. 신청에는 클로드 콘솔 계정과 회사 이메일, 웹사이트, 만드는 것에 대한 짧은 설명이 필요하고 2분쯤 걸린다고 적혀 있어요. 크레딧은 클로드 API에만 쓸 수 있고 AWS 베드록이나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에서는 못 써요. 승인되면 가장 높은 처리 한도로 올라가고, 크레딧이 끝나면 별도 이전 없이 표준 API 요금이 적용돼요.



제임스 마니카, 구글 언어 AI 20년 개요 발표

커뮤니티 쪽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앤스로픽이 여는 빌더 데이와 해커톤, 파운더 데이가 여섯 도시에서 돌아가고, 창업자들이 직접 여는 밋업과 데모 나이트,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과 AMA가 따로 안내돼요. 고객 사례 칸에는 이븐업이 문서 초안 작성을 15시간에서 15분으로 줄였고 딥그램이 4~10배 더 견고한 코드를 내놓으며 베가의 사이버 방어 플랫폼이 분석가 시간의 67%를 돌려주고 이브 리걸이 원고 측 로펌의 합의를 60일 빠르게 한다는 문장이 걸려 있어요. 프런티어 데이 영상에 나온 네 회사는 아직 이 사례 칸에 없어요. 영상이 하느 인으 그 비카을 채울 다음 이력들을

오늘 지면

- 1 AI 앤스로픽, 프런티어 데이 창업자 영상 공개
- 2 AI 오픈AI, 관리자 콘솔 분석 도구 활용 안내 공개
- 3 AI 오픈AI, 챗GPT 광고에 스폰서 에이전트 시험
- 4 AI 오픈AI, 10개 도시 고령자 챗GPT 워크숍 개최
- 5 AI 오픈AI, 챗GPT GPT-5.5 퇴역 발표
- 6 AI 월든 안, 데빈 GPT-6 Astra 테스트 영상



앤스로픽, 클로드 코워크와 챗하 나로 통합



구글 리서치, 검색 묶음 모델 R4T 공개

이 지면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오픈AI, 10개 도시 고령자 챗GPT 워크숍 개최

콜로라도 덴버와 플로리다 마이애미,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시니어 플래넷 교실에 9월 16일 같은 수업이 열렸어요. 오픈AI 아카데미가 AARP 산하 고령자 기술 서비스 단체 OATS와 함께 미국 10개 도시에서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는 무료 대면 챗GPT 워크숍, 이름은 고령자 AI 스킬 잼이에요. 오픈AI는 이날 개최 사실을 알린 발표문에서 이 행사가 고령자가 실용적인 AI 기술을 익히고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다면 프로그램

▶ 2면에 계속

AI

오픈AI, 관리자 콘솔 분석 도구 활용 안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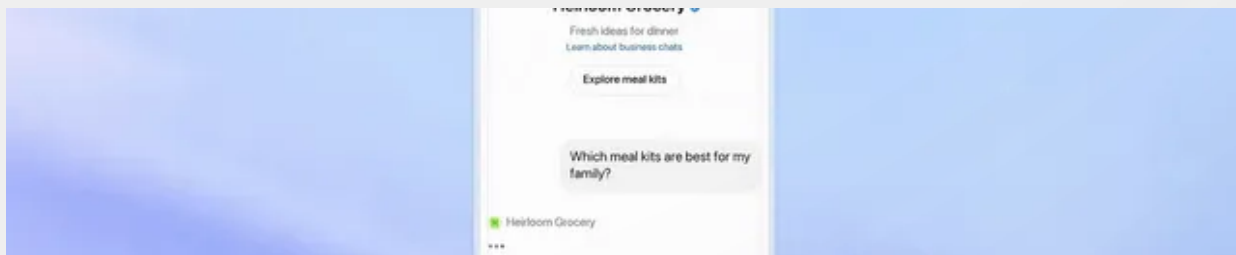
오픈AI가 9월 16일 회사 관리자가 AI 사용량을 사업 가치와 연결하는 방법을 담은 활용 안내를 공개했어요. 발표문에 따르면 챗GPT 관리자 콘솔의 분석 도구는 챗GPT 워크와 코덱스 전반의 사용량과 비용 데이터, 작업 인사이트, 성과 지표를 한자리에 모으고, 관리자가 이걸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팀을 지원하고 사업 가치를 평가하도록 설계됐어요. 회사는 사용량과 지출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며 사람들이 AI로 무엇

을 하고 무엇을 이뤄내는지도 관리자가 봐야 한다고 적었어요.

첫 화면은 사용량이에요. 발표문에 따르면 사용량 보기는 챗GPT 워크와 코덱스의 활성 사용자, 크레딧, 토큰 사용량을 함께 보여 주고, 그룹이나 사용자별로 걸려 보면 도입이 낮은 곳이 드러나서 관리자가 팀 책임자와 시작 워크플로와 교육 필요를 검토할 근거가 생겨요. 오픈AI는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모두 시연용 가상 데이터라고 밝혔어요.

AI

오픈AI, 챗GPT 광고에 스폰서 에이전트 시험



챗GPT 광고가 클릭으로 끝나지 않고 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픈AI는 9월 16일 챗GPT 광고에 스폰서 에이전트를 붙이는 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어요. 챗GPT 안에서 광고를 본 사람이 원하면 그 기업이 후원하는 에이전트와 대화를 열고, 궁금한 걸 묻고, 준비가 되면 기업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회사는 이 시험을 미국의 일부 광고주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관리자 콘솔 분석 도구 활용 안내 공개



- 1 챗GPT 관리자 콘솔의 분석 도구가 챗GPT 워크와 코덱스의 사용량, 작업 분류, 코덱스 기여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요.
- 2 작업 분류기와 모델-추론-속도 비중, 플러그인 순위표로 교육이 필요한 팀과 설정을 찾게 해요.
- 3 가상의 영업팀 계산과 1Password, ATV 빅어투어, 플레이코 사례가 함께 실렸고 모든 수치는 가정이라고 명시했어요.

두 번째는 작업 분류기예요. 인사이트 화면의 분류기는 메시지 표본을 사용 사례와 작업으로 묶어서 AI가 어떤 일을 돕고 있는지 보여 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는 기능 개발과 코드 유지보수가, 영업과 매출에는 계정 조사와 계획이 들어가요. 개요 탭은 작업 구성을 한눈에, 사용 사례 탭은 작업별 크레딧과 메시지, 활성 사용자를 표로 보여 줘요. 발표문이 예로 든 영업팀에서는 계정 조사와 계획이 가장 큰 크레딧 사용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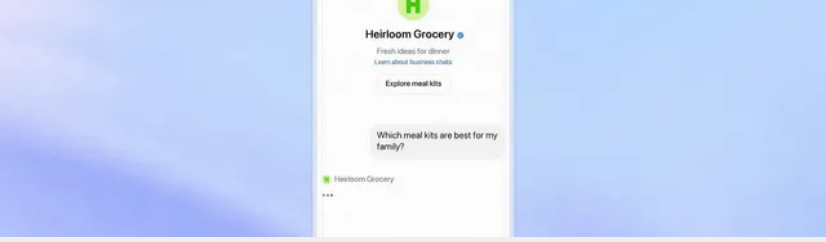
세 번째는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작업 상세 화면의 모델, 추론, 속도 항목은 설정마다 크레딧 비중을 보여 줘서 관리자가 설정이 일에 맞는지 살피고 모델 선택 교육을 겨냥할 수 있게 해요. 발표문은 일상적인 브리핑이라면 더 빠르거나 비용이 낮은 설정으로 시험해 보고 품질과 검토 시간을 비교해 볼 만하다고 적었어요. 플러그인 순위표와 스킬 화면은 어떤 도구가 작업을 받는지 보여 주는데, 관련 플러그인 사용이 낮으면 접근 권한이나 교육 문제일 수 있고, 자주 쓰이는 스킬에는 담당자와 정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어요.

데이터독의 AI 제품 매니저 바라드와지 타니켈라는 발표문에서 "오픈AI의 분석은 팀이 AI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게 해 주고, 앞으로의 지침과 정책을 세울 토대가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AI 에이전트 모니터링 제품인 에이전트 콘솔에서 오픈AI의 작업 분류를 이미 쓰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오픈AI에서 직접 받는 것이 고객의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그런 인사이트를 더 믿을 만하게 전달할 방법이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챗GPT 광고에 스폰서 에이전트 시험



- 1 오픈AI가 챗GPT 광고에서 기업 후원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스폰서 에이전트를 미국 일부 광고주와 시험 중이라고 9월 16일 발표했어요.
- 2 챗GPT 안에서 자연어로 캠페인을 만들고 분석하는 Ads Manager 플러그인, 카피-이미지 제안, 대화 맥락에 맞춘 문구 자동 번역이 같이 나왔어요.
- 3 허브스팟이 첫 CRM 파트너, 소피파이가 첫 이커머스 파트너로 붙었고 소피파이 앱은 9월 23일부터 다른 나라로 넓어져요.

메탈이 확인한 발표 페이지의 32초 시연 영상은 그 흐름을 화면으로 보여 줘요. 가족을 위한 빠르고 건강한 저녁 메뉴를 묻는 대화에 챗GPT가 세 가지 요리를 추천하고, 그 아래에 식료품 업체의 광고 카드가 붙어요. 사용자가 카드의 대화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단 이름이 챗GPT에서 그 업체로 바뀌고, 밀키트 세 종류가 카드로 나오고, 어느 게 바쁜 평일에 제일 쉬운지 묻는 질문에 에이전트가 다시 답해요. 광고가 답변 옆에 놓인 배너가 아니라 대화 하나를 통째로 여는 문이 된 거예요.

광고를 만드는 쪽에도 같은 날 도구가 여럿 풀렸어요. 광고주는 이제 챗GPT 안에서 Ads Manager 플러그인을 켜고 자연어 프롬프트로 캠페인을 만들고 고치고 분석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 주소나 브리프 한 장을 캠페인으로 바꾸고, 성과를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추천을 받는 것까지 한 대화에서 돼요. Ads Manager 안에는 AI 보조도 들어가서, 광고 초안을 쓸 때 랜딩 페이지와 캠페인 목표를 읽고 카피와 이미지를 제안해요. 광고주는 제안을 검토하고 고친 뒤에 캠페인에 넣을지 정해요.

선택 기능으로 AI 텍스트 맞춤도 열렸어요. 켜 두면 광고주가 등록한 헤드라인과 설명문을 대화 맥락에 맞게 고쳐 쓰고, 사용자가 쓰는 언어로 광고 문구를 자동 번역해요. 마케터 눈으로 보면 이 기능이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 광고 문구는 캠페인을 만들 때 고정됐는데, 이제는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냐에 따라 같은 광고가 다른 문장으로 나가요. 소재를 몇 벌 만들어 나눠 돌리던 방식이 대화 하나하나에 맞춰 문장을 바꾸는 방식으로 옮겨 가는 셈이에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10개 도시 고령자 챗GPT 워크숍 개최



- 1 오픈AI 아카데미와 OATS가 9월 16일 미국 10개 도시에서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대면 챗GPT 워크숍 고령자 AI 스킬 잼을 개최했어요.
- 2 수업은 여행 계획과 고지서 이해, 사기 가려내기를 다루고, 다급한 말투와 비밀 요구, 수상한 링크를 사기 징후로 짚어요.
- 3 오픈AI는 미국에서 55세 이상과 연결된 메시지 비중이 1년 사이 6%에서 10% 가까이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수치 하나가 이 프로그램의 배경이에요. 오픈AI는 미국에서 55세 이상과 연결된 메시지의 비중이 1년 사이 6%에서 10% 가까이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고령자가 챗GPT를 실용적인 안내와 정보 찾기, 글쓰기에 점점 더 쓰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에요. 전체 대화의 열 건 중 한 건이 55세 이상에게서 나온다면, 이 집단을 위한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사용자 기반 관리에 가까워요.

워크숍의 한 축은 온라인 안전이에요. 수업은 사기의 흔한 징후로 다급한 말투와 비밀을 요구하는 태도, 수상한 링크를 짚고, 챗GPT를 한 겹 더 확인하는 도구로 쓰는 법을 가르쳐요. 오픈AI가 발표문에 적은 규칙은 "멈추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한 줄이에요. 회사는 매주 수천만 번 사람들이 챗GPT에 수상한 메시지와 이메일, 웹사이트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고, 이 교육이 사기를 예방하고 탐지하고 차단하는 회사의 더 넓은 작업을 보완한다고 설명했어요.

10개 도시의 파트너는 전부 지역 단체예요. 덴버와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뉴욕 퀸스는 시니어 플레닛이 맡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는 미로워츠 센터, 미네소타 트윈시티는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테네시 내슈빌은 내슈빌 공공 도서관과 피프티포워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는 프레즈노 EOC, 아이다호 보이시는 LEARN 아이다호가 맡아요. 사회학자 눈으로 보면 이 목록이 발표의 핵심이에요. 기술 교육은 도구를 가르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이미 고령자를 만났던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들어갈 때 자리를 잡아요.

AI

오픈AI, 챗GPT GPT-5.5 퇴역 발표

챗GPT 공식 계정이 9월 15일 챗GPT와 챗GPT 워크, 코덱스의 모든 요금제에서 GPT-5.5를 10월 14일 내린다고 말했어요. 개발자 계정은 API와 API 키로 인증한 코덱스 세션에서는 계속 쓸 수 있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어요.



- 1 GPT-5.5는 10월 14일 챗GPT·챗GPT 워크·코덱스의 모든 요금제에서 내려가고, 코덱스 사용자는 GPT-5.6 Sol이나 GPT-6 Astra로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 2 API 플랫폼과 API 키로 인증한 코덱스 세션에서는 GPT-5.5가 그대로 남고, 개발자 문서의 폐기 목록에도 GPT-5.5는 없어요.
- 3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GPT-5.5를 레거시로 남기고 최소 90일 예고를 달라는 프로 구독자의 글이 올라왔어요.

오픈AI가 GPT-5.5를 10월 14일에 챗GPT에서 내린다고 9월 15일 밝혔어요. 챗GPT 공식 X 계정은 그날 "10월 14일, 챗GPT와 챗GPT 워크, 코덱스의 모든 요금제에서 GPT-5.5와 작업할 시간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코덱스에서 GPT-5.5를 쓰는 사람은 GPT-5.6 Sol이나 GPT-6 Astra로 옮기라는 안내가 붙었고, 게시글은 "그동안 고마웠어, 5.5" 라는 인사로 끝나요.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 160만 회, 좋아요 2만 5천 개, 답글 878개를 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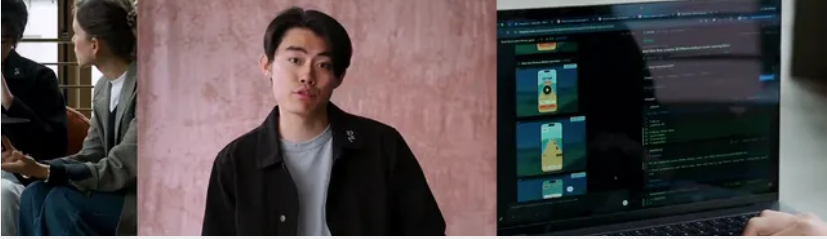
같은 날 오픈AI 개발자 계정이 그 게시글을 인용하며 선을 하나 그었어요. "GPT-5.5는 오픈AI API 플랫폼과 API 키로 인증한 코덱스 세션에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라는 한 줄이에요. 퇴역은 챗GPT 계정으로 로그인해 쓰는 제품에만 해당하고, 개발자가 API로 직접 부르는 경로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게시글도 조회 16만 회를 넘겼어요.

메탈이 확인한 오픈AI 개발자 문서의 폐기 목록에는 9월 16일 현재 GPT-5.5가 없어요. 이 문서는 API 모델을 퇴역시킬 때 지키는 최소 예고 기간을 적어 두고 있는데, 일반 공개 모델은 최소 6개월, 채팅용이나 코덱스용 같은 특화 변형은 최소 3개월, 프리뷰 모델은 2주처럼 훨씬 짧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안전이나 규정 준수 문제로 더 빨리 퇴역시켜야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예고를 준다는 단서도 있어요. 다만 이 약속은 API에 관한 것이고, 챗GPT 앱 안의 모델 교체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에요.

AI

월든 얀, 데빈 GPT-6 Astra 테스트 영상

오픈AI 개발자 계정이 9월 15일 코그니션 공동창업자 월든 얀의 1분 영상을 올렸어요. 데빈 안의 GPT-6 Astra가 코드가 작동한다는 말을 테스트로 증명해, 사람이 직접 들여다볼 코드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 1 월든 얀은 이제 문제가 코드를 쓰는 속도가 아니라 출시 전에 그 코드를 검토하고 확신을 얻는 일이 됐다고 말했어요.
- 2 코그니션 벤치마크 FrontierCode 1.1에서 GPT-6 Astra는 Fable 5와 0.4점 차이, 비용은 64% 낮고 Fable 5.1은 앞섰어요.
- 3 Astra는 데빈 데스크톱과 CLI에서 바로 쓰이고, 데빈 클라우드에서는 모델 믹스처의 일부로 들어가요.

오픈AI 개발자 계정이 9월 15일 X에 1분짜리 영상 하나를 공개했어요. 자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을 만드는 코그니션의 공동창업자 월든 얀이 GPT-6 Astra를 데빈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직접 말하는 영상이에요. 게시글은 Astra가 데빈이 "작동한다"고 말한 것을 팀이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로 뒷받침하게 돕는다고 적었어요.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 5만 7천 회를 넘겼고 좋아요 580개가 붙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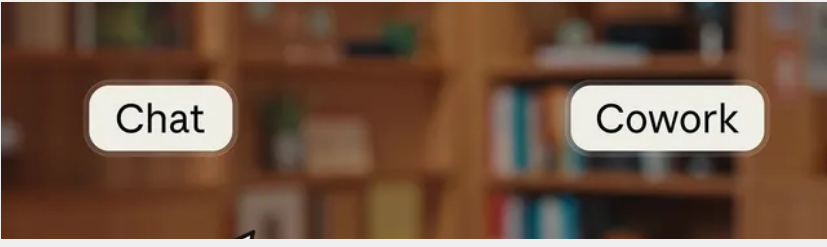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영상에서 얀은 자신을 코그니션 공동창업자로 소개하고, 회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주력 제품 데빈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대형 은행부터 테크 스타트업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함께 일한다고 그는 설명했어요. 최근에는 Astra를 데빈 안에서 시험해 보며 제품 전반을 개선하는 데 써 왔고, 핵심 클라우드 에이전트인 데빈뿐 아니라 CLI와 데스크톱 제품까지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영상의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예요. 얀은 "우리와 다른 엔지니어링 팀들이 이제 워낙 많은 코드를 쓰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코드를 어떻게 다 검토하고 출시 전에 어떻게 확신을 얻느냐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코드를 쓰는 속도가 아니라 읽는 속도가 병목이라는 진단이에요. 그 답으로 그가 쓴 것이 Astra의 테스트 능력이고, "Astra가 크게 나아진 부분 하나는 자기 작업이 실제로 기대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어요.

AI

앤스로픽, 클로드 코워크와 챗 하나로 통합

앤스로픽이 9월 16일 클로드 코워크와 챗을 하나의 대화로 합치고 클로드 독스와 슬라이드를 새로 내놔어요. 작업을 어디에 맡길지 고르는 일은 이제 클로드가 대신 판단해요.



- 1 클로드 코워크와 챗이 하나로 합쳐져 어느 대화에서든 큰 작업을 맡길 수 있고, 프로와 맥스 요금제부터 몇 주에 걸쳐 적용돼요.
- 2 클로드 독스와 슬라이드가 새로 나왔고 클로드 디자인은 대화 안에서 돌아가며, 셋 다 유료 요금제 베타예요.
- 3 기본 권한은 행동 전에 묻는 수동이고, 깃허브 추가와 대화 분기 등 아직 안 되는 기능도 문서에 적혀 있어요.

앤스로픽이 9월 16일 클로드 코워크와 챗을 하나의 클로드로 합쳤어요. 발표문에 따르면 이제 사용자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 정오까지 마감인 보고서를 통째로 맡기든 어디에 맡길지 고르지 않아도 되고, 노트북을 담은 뒤에도 클로드가 일을 이어가요. 같은 날 문서를 함께 쓰는 클로드 독스와 발표 자료를 만드는 클로드 슬라이드가 새로 나왔고, 따로 쓰던 클로드 디자인은 대화 안에서 바로 돌아가게 됐어요. 통합은 프로와 맥스 요금제부터 몇 주에 걸쳐 웹과 데스크톱, 모바일 앱에 순서대로 적용돼요.

두 제품이 갈라져 있던 이유는 앤스로픽이 직접 적었어요. 회사는 코워크를 더 큰 작업을 위한 별도의 자리로, 디자인을 시각 작업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는데, 둘을 다 쓰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한 건 작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하는 일이었고 한쪽에서 시작한 일이 다른 쪽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밝혔어요. 발표문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르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적고, 클로드가 작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므로 코워크와 디자인이 하던 일이 이미 갖고 있는 맥락과 스킬, 캐릭터와 함께 어느 대화에서든 열린다고 설명했어요.

클로드 앱 디자인을 이끄는 메건 최(Meaghan Choi)는 발표 영상에서 코워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는 "코워크는 클로드가 여러 단계로 된 큰 작업을 어떻게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듬어 온 곳이에요" 라고 말한 뒤, 작업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따로 떼어 두는 게 더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 라고 밝혔어요. 그는 이번 통합을 첫걸음이라고 부르며 모델이 나아지는 만큼 경험도 계속 고치겠다고 덧붙였어요.

AI

구글 리서치, 검색 묶음 모델 R4T 공개

구글 리서치가 9월 15일 검색 결과를 한 묶음으로 내놓는 Retrieve-for-Train 프레임워크를 ICML 2026 논문과 함께 공개했어요. 강화학습을 한 번만 돌려 작은 디퓨전 모델을 가르치니 질의 정확이 12~20배 빨라졌어요.